

장기찬*, 유수오, 황영문
부산대학교

A Study on Performance Design of Single-phase Induction Motor with Non-symmetric Cores

Kichan JANG*, Suho YU, Youngmoon HWANG

Pusan University

Abstract - This paper is studied on the improvement of an efficiency and power factor for the single-phase induction motor with non-symmetrical cores. Since the motor construction having non-symmetrical core has the effect of reluctance torque and the rearrangement of revolving field, if core and winding design were optimized, the simple and economical permanent-capacitor-motor will be designed. The most significant design variables are the degree of dissymmetry, the location of windings, and the turn-ratio between the main and auxiliary winding.

1. 서 론

동력변환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단상유도전동기이다. 주로 분수마력전동기인 단상유도전동기는 가정용전기기기의 보급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있고 용량면에 있어서도 대형화되고 있다. 그리하여 1/2마력이하의 것만이 이용되던 것이 1/2마력 이상 1.5마력 까지의 용량에도 이용되고 있다.

만약 특성으로도 고효율, 고역률 및 신뢰성이 높은 전동기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무접점 고품질의 단상유도전동기에 대한 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
단상유도전동기는 특성상으로 기동보상장치가 필요하다. 기동보상장치의 구조에 따라, Split-phase type, Capacitor-start type, Capacitor-start/running type 및 Permanent-capacitor type 으로 대별된다. 제작구조면으로 볼 때, 철심, 관선, 기계적구조 및 기동보상장치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나, 그중 기동보상장치의 제작구성비율이 가장 높다. 또한 기동보상장치는 제품의

신뢰성을 크게 좌우한다.

단상유도전동기의 동작특성 설계는 보통 보조관선의 역자리액턴스의 조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데, 기동특성과 운전특성을 동시에 좋게 할 수는 없다. 이는 특성상으로 그 적정치가 회전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기때문이다. 즉, 기동보상용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정되는 역자리액턴스를 기동 시에 적정하게 하면, 정상운전상태에서는 오히려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여 전동기효율을 저하시킨다. 그리하여 기동 시 속도가 정격속도의 75%인 점에서 보조관선을 분리하는 방식이 이때까지 일반화되어 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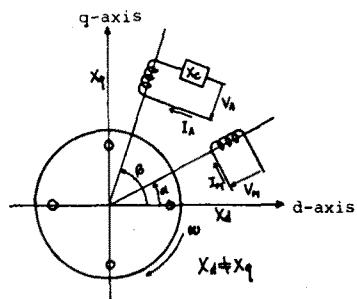


Fig. 1, Schematic arrangement of single phase induction motor with non-symmetric cores.

이상과 같은 동작기능을 개선하고자 1965년 이래 비대칭전동기의 개발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, 이들은 고정자관선을 비대칭화하는 방법과 고정자철심을 비대칭화하는 방법이다.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방법을 함께 채택하여 신뢰성면에서 가장 좋은 Permanent-capacitor type에서 기동토오크 개선과 정상운전시의 효율 및 역률 개선을 위한 동작특성 설계를 애색하고자 한다.

비대칭 철심구조를 갖는 단상유도전동기의 동작 특성 설계

2. Cross-field theory에 의한 동작특성 애석

2-1. 특성방정식

고정자철심을 비대칭으로 한 전동 기구에서의 특성 애석은, 철심에 대한 자화리액턴스를 직축과 원축으로 나누어 애석한다. 특성 애석을 위한 고정자철심구조와 관련해지는 Fig.1과 같다. 여기서

(1) 철심구조에서는, 직축은 자화리액턴스가 가장 큰 방향으로 하고, 원축은 직축에 대하여 전기각으로 90° 위상각을 갖는 방향으로 한다. 이때 공극에서의 자화리액턴스 분포는 각 축에 대하여 정연마분포를 갖는 두 성분이 중첩이 된 형태로 된다. 이러한 방법으로는 slot와 teeth의 크기 및 방향, 공극의 크기, 철심의 두 자율 등을 조정하여 구성한다. Fig.2는 Crazy core라는 별칭을 가진 비대칭철심구조의 안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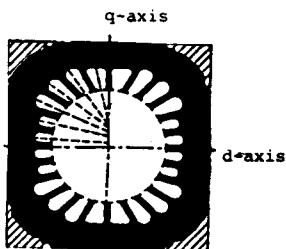


Fig. 2. Structure of non-symmetric core

(2) 관선배치각은 철심의 직축에 대하여 갖는 관선축각을 주관선은 α , 보조관선은 β 으로 한다. 이때 관선분포는 정연마분포로 한다.

주관선과 보조관선을 갖는 분산형전동기에서, 동작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동기정수는 (ㄱ) 보조관선/주관선의 관선비, a (ㄴ) x_d/x_q 의 비, (ㄷ) 주관선배치각, α (ㄹ) 보조관선 키패시턴스, x_c 와 (ㅁ) 회전자저항치등이다. 이들을 주된 암수로 한 전압방정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$$V_M = [R_M + j(X_M1 + X_{M2}/a + X_d \cos^2 \alpha + X_q \sin^2 \alpha)] I_M + jX_{M1} \cos(\beta - \alpha) I_A + jX_d \cos \alpha I_{rd} + jX_q \sin \beta I_{rq}$$

$$V_A = jX_{M1}/a \cos(\beta - \alpha) I_M + [R_A/a + j(X_M1/a + X_{M2} + X_d \cos^2 \beta + X_q \sin^2 \beta) a - jX_c/a] I_A + jX_d \cos \beta I_{rd} + jX_q \sin \beta I_{rq}$$

$$0 = [-(1-s)X_q \sin \alpha + jX_q \cos \alpha] I_M + [-(1-s)X_q \sin \beta + jX_q \cos \beta] I_A + (R_2 + j(X_{2d} + X_d)) I_{rd} - (1-s)(X_{2q} + X_q) I_{rq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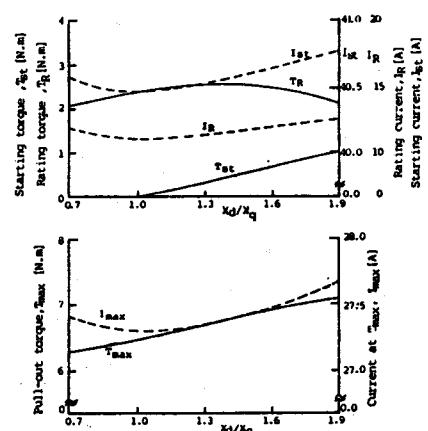
$$0 = [(1-s)X_d \cos \alpha + jX_q \sin \alpha] I_M + [(1-s)X_d \cos \beta + jX_q \sin \beta] I_A + (1-s)(X_{2d} + X_d) I_{rd} + (R_2 + j(X_{2q} + X_q)) I_{rq}$$

이상과 같은 전압방정식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특성치를 산정하여 분석한 후, 전동기의 적정동작특성설계를 행한다. 여기서 자화리액턴스 X_d, X_q 는 전동기 출력력에 관계되는 값으로, 단상유도전동기에서는 대략 $30 \sim 110 \text{ mH}$ 인 값을 갖는다. 여기서는 소요전동기 출력력에 대한 자화리액턴스의 기준설계치는 X_q 를 기준으로 한다. 그리고 ㄹ 와 X_c 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의 적정설계치를 먼저 산정한 후 비대칭구조의 동작특성설계를 행한다.

- (ㄱ) 기동토오크, T_{st}
- (ㄴ) 기동전류, I_{st}
- (ㄷ) 최대토오크, T_{max}
- (ㄹ) 최대토오크 시의 슬립, s_{max}
- (ㅁ) 정격토오크, T_R
- (ㅂ) 정격토오크 시의 슬립, s_R
- (ㅅ) 정격토오크 시의 흐울, n_R
- (ㅇ) 정격토오크 시의 역률, $p.f_R$

2-2. 철심구조의 비대칭효과

고정자관선을 주관선만으로 한 순단상관선전동기에서 철심구조를 비대칭으로 하였을 때의 동작특성의 효과를 살펴보면, Fig.3와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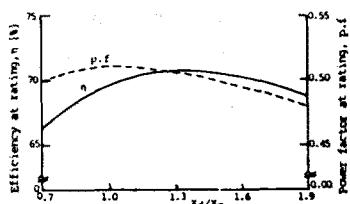


Fig. 3, Performance available v.s X_d/X_q at $\alpha = 45^\circ$

Fig. 3에서 $X_d/X_q=1$ 인 경우는 순단상유도전동기의 조건이다. 비대칭철심구조로 하면 X_d/X_q 의 값은 비대칭정도에 따라 커지는 대로 이때 Starting torque는 증가하여 보조관선이 없어도 기동될 수 있게 된다. 이는 reluctance 토오크의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. 반면에 기동전류와 reluctance 토오크 및 정격토오크는 적아이며, 정상운전시의 효율 및 역률 또한 적아한다.

비대칭철심구조에서는 관선축각을 갖게 할 때 그 효과를 나타낸다. 여기서는 $\alpha = 45^\circ$ 로 하였을 때 기동토오크가 가장 커진다. 이는 리락턴스 토오크의 발생을 의미한다. 즉, 일반적으로 리락턴스 토오크는 기본주파수의 2배각의 암수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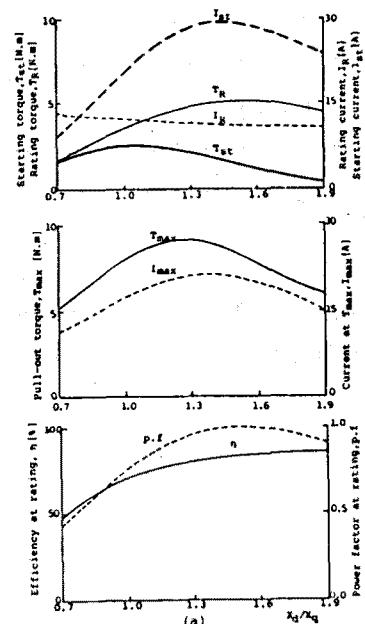
3. Permanent-capacitor type 전동기의 동작특성설계

Permanent-capacitor type 전동기는 기동보상장치를 갖지 않으므로 가격면에서 유리하며, 고장율이 적어 신뢰성도 높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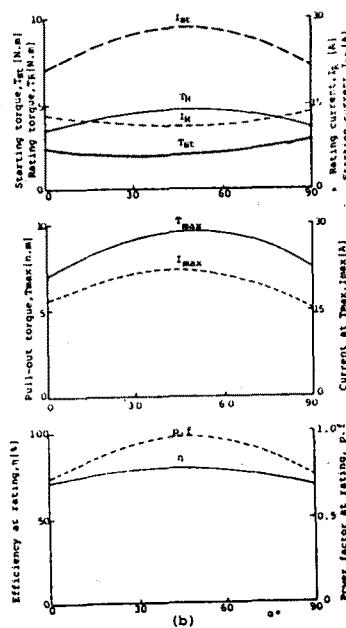
일반적으로 대칭철심을 갖는 단상유도전동기에서는, 기동식의 기동토오크발생을 위하여 보조관선에 기동용 커페시터를 삽입하는데, 기동식과 정상운전식 그 값을 달리 한다. 이는 정상운전식의 효율과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. 그러므로, 원심분리기등의 기동보상장치에 의하여 보조관선을 분리시켜야 하므로 기동보상장치가 필요하다.

여기서 고정작철심구조를 비대칭화하면, 기동토오크와 정상운전특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. Fig. 4는 먼저 보관선수/주관선수의 비, $a=1$ 에서의 적정커페시턴스치에서 X_d/X_q 를 조정하였을 때의 동작특성을 나타낸다. 정상운전효율 및 역률은 X_d/X_q 의 값이 커지면 좋아지는 경향을 갖는다. 그러나 이 값이 1.5 이상이 되면 토오크의 값이 떨어진다. 이러한 특성은 2-2의 순단상의 경우와

상반된 현상으로, 비대칭철심에서는 동작점의편위를 갖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. 관선비는 $a = .8 \sim 1.15$ 가 적정치이고, 커페시턴스량은 자체의 리락턴스 토오크의 효과가 있으므로 대칭철심보다 적은 값을 갖는다.



(a)



(b)

Fig. 4, Performance availables v.s X_d/X_q and for Permanent-capacitor induction motor. 200V, 1.5HP

비대칭 철심구조를 갖인 단상유도전동기의 동작 특성 설계

Fig.4에서의 특성을 보면, 기동용으로 사용하는 보조관선의 케페시티는 보조관선수/주관선수 비와의 조합으로 적정한 기동토오크값을 선정한 후, 운전상태에서 도분리하지 않고 둘 때, $X_d/X_q = 1.3 \sim 1.5$ 범위에서는 α 각을 $30^\circ \sim 60^\circ$ 범위로 하면 효율 및 역률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. 이는 기동보상용 케페시티를 기동식과 운전식을 달리하는 전동시스템보다 보조장치가 없어 구격면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. 다만, 이를 위하여 앞서의 조정정수 설정법을 특성해석에 의하여 정밀하게 해석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한다.

4. 결 론

최근, 소형전동기 개발에 있어서, 고효율 및 고역률 전동기의 개발에 있어서 비대칭구조의 단상유도전동기는

구격면에서도 유리하여 실용화가 요망된다. 이를 위하여 전동기 내부정수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.

5. 참 고 문 헌

- [1] DORAN D. Hershberger, JOHN L. Oldenkamp, "A Single-Phase Induction Motor with One Distributed Winding," IEEE Trans. on PAS., Vol. PAS-87, NO. 10, p.1862-1866, OCTOBER 1968
- [2] DENIS O'Kelly, "Equivalent Circuits for Single-Phase Induction and Hysteresis Motors," IEEE Trans. on PAS., VOL. PAS-90, NO. 1, p.297-288, JANUARY/FEBRUARY 1971
- [3] P. C. Krause, "Simulation of Unsymmetrical 2-Phase Induction Machines," IEEE Trans. on PAS., Vol. PAS-84, NO. 11, p.1025-1037, NOVEMBER 1965